



영암 대중교통 혁신 단행... '더 큰 영암' 도약

군내 버스 무료화·BIS 재구축...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 노선도 내년 말까지 전면 교체·나주역 경유 노선 개설도

영암군이 민선 8기 동안 준비했던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료 버스 도입 ▲군내 버스(누구나 버스) 브랜드화 ▲버스

정보시스템(BIS) 재구축 ▲버스 노선 전면 교체 등이다.

영암군은 지난 1일 누구나 군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나이,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객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대중교통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평등 실현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도입될 '누구나 버스'의 브랜드화는 영암군의 대표 캐릭터인 영암남생이, 무니, 산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영암군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크게



영암군이 나이,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군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버스'를 도입했다. 사진은 영암군 대표 캐릭터인 영암남생이를 모티브로 한 '누구나 버스(위쪽)' 시승식에 참여한 우승희(오른쪽에서 네번째) 영암군수와 운수사 대표이사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영암군 제공>

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구축돼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했던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전면 재구축된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차량 내 GPS를

전면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구축할 예정이며, 9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12월까지 재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말까지 노선도 역시 단계적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며,

통일된 디자인을 채택해 미관 또한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신규 노선도 디자인을 선정해 전체 40개소 중 올해 10여곳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잔여분을 완료한다.

한편, 지난 2일 나주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유노선이 개설됨에 따라 그동안 나주로 운행하던 노선이 나주역을 경유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년간 영암군과 나주시의 협의 끝에 마침내 116번 버스 노선이 나주역을 경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환승에 불편을 겪었던 영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6번 버스는 영암읍에서 매일 두 차례 출발하며, 오전 7시10분과 오후 4시30분에 운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 이용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벼멸구 확산 방제 총력"

약제 긴급지원 집중 방제 실시...피해 최소화 지원

명현관 해남군수가 벼멸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송지면과 화산면 일대 벼 재배농지를 잇따라 현장 방문하고, 피해 최소화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벼멸구 방제 현장점검은 관내 벼 재배농지에 벼멸구 발생 및 피해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방제 현황 등 의견을 청취하고 대처 방안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17일 해남군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벼멸구 발생지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벼멸구 방제 약제 지원을 20일까지 완료하는 등 집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해남군 관내 벼 재배면적 1만9천77ha 중 약 5% 가량인 985ha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해충의 세대 교체주기가 4일 정도 단축되면서 벼멸구가 다량으로 증식됐으며, 추석 이후에도 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확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벼멸구는 줄기와 이삭을 갉아먹어

벼를 고사시키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된다. 일반 방제로는 벼 밀동에 서식하는 벼멸구를 박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액이 밀대까지 흐를 수 있도록 고성능 살포기 등을 활용해 충분한 약량이 살포되도록 해야한다.

해남군은 집중 방제기간 동안 농가와 읍·면 예산을 실시하고, 발견 즉시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조생종 및 중생종 등 수확기에 접어든 벼는 조기 수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벼멸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벼 재배농지를 방문해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 군수는 "벼멸구는 벼 생육후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으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담 초기부터 후기까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

군수 주재 청렴 회의서 '부패없는 청렴무안' 서명

무안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 주재로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 역할에 대한 청렴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청렴도 평가 대비 기관장의 반부패·청렴 실천 대표 사례 선정 및 지속 가능한 청렴 시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청렴리더로서 필요한 조건과 청렴 가치 정착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김상호 기자

회의를 마치고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기획실장 등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부패없는 청렴무안'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산 군수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해 부패 없는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무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수 주재 청렴 회의 모습. <무안군 제공>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6억여...이달 30일까지 납부

완도군은 19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재산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6천건에 토지분 14억5천만원, 주택 2기분 1억9천700만원 등 총 16억4천7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 ARS(14221), 간편결제 사업(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탄소중립 선도도시' 1차 대상지 선정

군 단위 유일... 'Net-Zero Leading Island 신안군' 슬로건

신안군은 1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1차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지역·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이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차 대상지는 지난해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전국 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총 13개 지역이 선정됐다.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신안군이 선정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한단계 다가갔다는 평가다. 신안군은 공모에서 'Net-Zero Leading Island 신안군!'을 슬로건으로 채택했으며, '넷제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된다는 뜻으로 순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신안군의 의지를 담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지정되면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갯벌, 산림 조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이용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신안군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영광·장성 걷고 싶은 길' 남도한바퀴 운영

매주 화·수요일 진행...영광승마장 연계 승마 체험도

영광군은 19일 "9월부터 영광테마박물관 내에서 '영광·장성 걷고 싶은 길'을 주제로 한 남도한바퀴 가을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금호고속이 주관하는 '남도한바퀴'는 전남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들을 버스로 여행하며 가을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행 상품이다.

여행상품은 총 28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영광군은 두 가지 코스를 통해 군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영광·장성 걷고 싶은 길'코스는 매주 화요일 영광테마박물관과 가마미해변을, '영광·함평 서해바다 여행'코스는 매주 수요일 백수해안도로와 불갑저수지수변공원, 불갑사를 경유한다.

특히 영광테마박물관은 이번 남도한바퀴 운영 기간 동안 인접한 영광승마장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거리뿐만 아니라 놀거리 또한 충족시킬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이 9월부터 11월까지 '영광·장성 걷고 싶은 길'을 주제로 남도한바퀴 가을코스를 진행한다. 사진은 가을코스과 연계한 영광승마장에서 승마체험 모습. <영광군 제공>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조기검진·맞춤 프로그램 등 발병 최소화...3개 항목서 높은 평가

목포시는 "최근 화순 소재 하니움문화스프츠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남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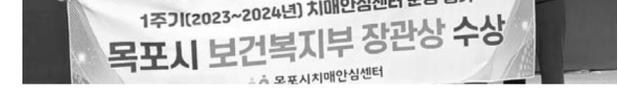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전국 25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총 3개 항목에 대해 데이터·서면·현장·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목포시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 발병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

원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는 조호물품 제공,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미선 목포시 하당보건지소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목포시가 지역사회

와 치매극복을 위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CIST),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목포시치매안심센터(목원동 트윈스타 3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61-270-4271·427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모습. <목포시 제공>